

김종일 작 'Black'

한중일 추상미술의 세계를 만나다



순홍투 작 '행자무강(行者无疆)'

한중일 현대미술교류전, 11월1~15일 은암미술관 우제길·왕귀젠·마루야마 준코 등 작가 40명 참여

지난 2014년 열린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에서는 각국을 대표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선정했다. 이 때 선정된 도시는 한국의 광주, 중국의 취안저우시, 일본 요코하마시였다.

광주와 함께 문화도시로 선정된 인구 885만명의 항만도시 취안저우는 고대 해상 실크로드의 거점으로 유라시아를 잇는 해상 교역의 중심지였다. 세계교박물관 등 유명 박물관과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이 4곳이 넘는 예술의 도시다. 1859년 개항 후 근대화 창구 역할을 하며 해외 문화를 독자적으로 받아들여온 요코하마는 인구 370만명 규모로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요코하마 개항제 등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다.

'월년 문화도시'로 선정된 세 도시는 해마다 다양한 문화 예술 행사를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왔다. 지난 2018년 취안저우시에서는 한중일 작가 전시회가 열렸고, 요코하마는 '아티스트 인 레지던시' 사업을 통해 신진 예술가들의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동아시아 원년 문화도시인 세 도시의 추상미술작가들이 참여하는 한중일 현대미술교류전이 오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은암미술관에서 열린다. 전시 오픈식은 11월 1일 오후 4시.

광주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이 주최하고 취안저우시와 요코하마시가 협력하는 이번 전시는 문화예술로 이목을 끌고 있는 3개 도시의 현대미술의 흐름을 살피는 의미있는 행사다. 참여작가는 한국 20명, 중국 10명, 일본 10명 등 모두 40명으로 회화와 조각 작품을 통해 다양한 작품 세계를 선보인다.

전시회 주제는 '심상(心象)'. 눈에 보이는 형상을 넘어, 마음의 형상을 통해 작가들이 추구하는 미술세계와 회화적 메시지를 살펴보는 기획이다. '심상(心象)'은 또한 심상(心相)이기도 한데, 예술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장이기도 하다. 광주에서는 오랫동안 우직하게 지역의 추상미술을 지키며 활발한 활동을 해온 원로 작가들과 비구상 그룹 '에쁘르' 회원들이 작품을 선보인다.

참여 작가는 김종일·우제길·최재창·김대길·김인경·강태웅·김유홍·김주연·김혜선·나명규·노정숙·변경섭·안준희·양해웅·우미경·윤병학·이명숙·이병재·이석원·이정기 등이다.

중국에서는 패브릭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순홍투 작가와 왕귀젠 작가의 작품 등을 만날 수 있으며 일본작가 마루야마 준코의 '존재하는 것'은 목재와 판넬에 페인트, 비누를 사용해 작업한 작품으로 눈길을 끈다.

전시장에서는 도슨트의 작품해설을 통해 좀 더 편하게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그렇게 흘러 지나간다'

노은영 개인전, 11월13일까지 나주 예술의 전당

노은영 작가 개인전이 오는 11월 13일까지 나주 예술의 전당(나주시 교육길 13 D-5동)에서 열린다.

'그렇게 흘러 지나간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노 작가는 기존의 회화 작품 뿐 아니라 새롭게 시도한 영상작품도 함께 선보인다.

노 작가는 자신이 경험했던 다양한 세계를, 자연을 빚낸 풍경화로 담아낸다. 작가는 2020년부터 익숙했던 것들에 대해 새롭게 질문을 던지며 그 속에서 발생하는 내면의 변화에 주목하고, 변모하는 것들을 관찰해왔다. 우리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감정들을 자연으로 표현해온 작가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다른 인간, 다른 국가, 내가 속하지 않은 집단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화폭에 풀어놓는다.

공력이 들어가는 세심하고 섬세한 붓질이 인상적인 회화 작품을 주로 선보이는 노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제 4집단'과의 콜라보를 통해 영상 작업 '배일의 시간'도 처음 선보인다.

조선대 미술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노 작가는 동 대학원 미술학과를 수료했다.

이번 전시는 2022년 광주형 문화메세나 문화동행 광주 문화예술 기부금 매칭 사업 지원을 받았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생명의 땅'

10월의 마지막 밤에 'K-가곡'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 오늘 금호아트홀

깊어가는 10월의 마지막 밤, 100주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가곡을 사랑하고 계승하기 위해 예향의 도시 광주의 음악가들이 K-가곡을 노래하는 공연을 마련했다.

31일 오후 7시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이야기가 있는 가을 밤의 K-가곡 축제'가 열린다.

빛고을하모니의 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한국 가곡의 시대적 흐름과 신작 가곡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시와 노래로 표현한 우리 가곡을 박원자 시인의 이야기와 광주챔버싱어즈 등의 합창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합창과 독창 등을 선보이는 이날 무대에는 광주챔버싱어즈의 합창과 함께 소프라노 고재경, 바리톤 이길호, 베이스 기세관의 독창이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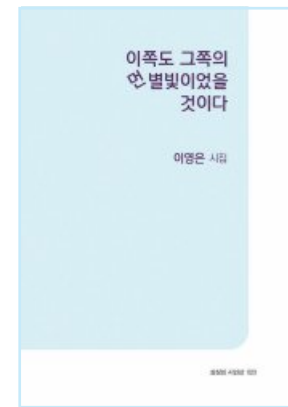
총 6개 섹션으로 나뉘지는 무대는 먼저 '3·1 운동과 새로운 장리의 노래인 가

곡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봄치녀'와 '동무생각' 등을 노래한다. 두번째 섹션인 '중일전쟁과 한국 가곡의 빛과 그림자'에서는 한국 가곡의 그림자를 상징하는 곡 '선구자'와 한국 가곡의 빛인 '어머니의 마음'과 '내 마음'을 부른다.

'광복과 한국가곡의 새로운 출발' 섹션에서는 '동심초'와 '산유화', '고풍의 상' 등을 소프라노 김영미와 나인희, 김미란이 각각 노래한다. 이어 '6·25 전쟁의 비극을 가곡으로 승화'를 주제로 곡 '부용산'과 '떠나는 배'를 노래한다.

다음으로 '아름다운 강산,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가곡으로 노래하다'에서는 '그리운 금강산'을 비롯해 '청산에 살리라', '강 건너 봄이 오듯' 등 5곡을 선보인다. 마지막으로 'K가곡의 맥을 잇는 신작가곡'에서는 '첫사랑'과 '그대 사는 섬으로' 등을 선보인다. 입장료 1만 원이며 학생은 50% 할인된다. 문의 010-7141-0796.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한 알 한 알 껴어진 '자수정 목걸이' 구슬들

광양 출신 이영은 시인 '이쪽도 그쪽의 먼 별빛이었을 것이다'

광재구 시인은 이 시인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한편의 동화 같기도 하고, 꿈 같기도 한 이미지가 떠올려진다. 시인이 어떻게 시를 대하는 지 상상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시인은 매일 자신 안의 시의 신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만나지요. 그렇게 꿈꾼 그리운 세상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것입니다. 한 알 한 알 '껴어진 자수정 목걸이' 구슬들이 함께 모여 빛나는 세상의 꿈."

광양 출신 이영은 시인이 두 번째 시집 '이쪽도 그쪽의 먼 별빛이었을 것이다'(상상인)를 펴냈다. '반달', '이국, 신께서', '호세아', '먼 별' 등 모두 60여 편의 시가 실린 작품집은 시를 대하는 시인의 진지한 모습을 엿보게 한다.

"한 알의 진실을 가진 뒤/ 매일매일 행복했네/ / 세계의 전부가 되는/ 하나의 소중함// 어쩌다 알게 됐을까/ 수집 개 중 단순한 한 개 일 수 있다는 것을/ 껴어진 자수정 목걸이 한 알 바라보면서 / 우주의 처음을 생각해// 너의 전부는 어딘가에서 작은 부분이 되고/ 희미해지고 하찮게 되어 점점 지워지고 있네..."

위 시 '1과 100의 우주'는 제목이 상징하듯 처음과 끝, 하나와 모든 것, 한 사람과 우주 모두를 상징하고 있다. 어느 것 하나 귀한 것이 없다는 사유가 전제돼 있으며 저마다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시인은 그런 존재다. 하찮은 것들을 불러 모아 이름을 부여하고 개별자로서의 존재 이유를 부여한다. 그렇다고 그 존재들이 저마다 목소리만을 내지 않는다. 이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신의 질서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껴어진 자수정 목걸이'는 그런 하나하나가 모여 조화와 화모니를 이룬다.

광재구 시인은 추천 글에서 "단 한 사람도 남을 해하지 않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 이렇게 이루어진 세상이 시의 신의 형상을 한 세상 아니겠는지요"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한편 이영은 시인은 순천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 석사를 수료했다. 시집 '심장에 박힌 해'를 펴냈으며 2022년 전남문화재단 창작 지원금을 수혜 받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0월에 진행된 체험마당245 '주말문화놀이터' 장면.

<전일빌딩245 사업단 제공>

전일빌딩 문화체험 특화프로그램 만나요

'나이트마켓'·'아무튼, 북페어'·'내 생애 첫 전시' 등 다채

2022 전일빌딩245 시민문화체험특화프로그램이 올해의 주제 '다시 꽃으로 피어'의 마지막을 장식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11월 주제는 '미리 크리스마스'.

특히 인기 프로그램인 '주말 문화놀이터'는 와인병 조명 만들기, 리스 만들기 등과 같은 다양한 무료 체험으로 11월의 토요일을 채울 예정이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나만의 아트세계 꾸미자'는 12월 가족의 특색을 담은 '스트링 아트'로 시민들을 만난다.

'플리마켓-열정의 백미'는 공연 '심어 송 라이터스'와 함께 나이트 마켓으로 선보인다. 광주의 합한 셀러들이 4일~5일(오후 6시~밤 9시)까지 전일마루에서 진행한다. 마지막 행사는 11월 1층 로비에서 '아무튼, 북페어' 시즌2로 돌아온다.

전일가요제의 역사성을 이어가며 전국의 싱어송라이터를 초대해 교류하는 '심어 송 라이터스'는 음악을 소개하는 자리다. 14일(오후 6시) 아은 프로젝트, 조재희, CR태규, 최고은 공연을 시작으로 5일에는 고니밴드, 현배 등이 전일마루에서 공연을 이어간다.

미디어전시도 있다. 9일~12일까지(오후 6시~

8시)는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임용현, 문창환 작가가 참여하는 '미디어전시 인사이드 더 시티'에서는 미디어 파사드작품을 선보인다. 신도원 아트컴퍼니와 빛고를 댄스스 협업으로 펼쳐지는 퍼포먼스는 'Color OF Jeonil' (18일~19일 오후 6시)을 주제로 펼쳐질 계획이다.

이밖에 전시 프로그램 '전일245 전' (15일~12월 13일)은 이조흥 설치 작가의 작품을 만나고 '내 생애 첫 전시' (26~12월 5일)에서는 이유빈 작가의 개인전을 만난다. 작고한 학생 아둔홍 아카이빙 결과를 발표하는 예술가 참여 프로그램 '레전드 인 광주 아카이빙' 세미나는 30일 오후 3시 중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관객 참여형 '전일245 클래스'는 보행로봇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만들어보는 '6축 보행로봇 만들어 볼래?' (15일)가 펼쳐지며 북 콘서트 '책 읽어주는 여자·남자'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 숲'을 시민들과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눈다.

자세한 내용은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jeonil_building_245_) 또는 공식 블로그(blog.naver.com/jeonil245_)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223-0245-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